

口碑文學의 自由區域性 攷

張 琯 鎮

1. 序
2. 口碑文學의 特性
3. 自由區域의 解釋과 理解
 - 1) 檀君神話
 - 2) 口碑文學의 流動
 - 3) 口碑文學의 定着
4. 結

1. 序

1913年 프랑스의 뽀·세비요(Paul Sébillot)가 「民俗學・口碑文藝와 傳承土俗誌(Le Folk-lore, Littérature Orale et Ethnographie Traditionnelle)」라는 著書를 내고, 그 책에서 Littérature라던 一般의으로 文字로 表現된 것으로만 생각하던 當時에 文學에는 文字의 힘을 빌지 않고 입에서 귀로 傳하는 口碑傳承 文學도 文學임을 主張했다. Sébillot는 이 口碑傳承文學 Littérature Orale 속에 說話 傳說 民謠 수수께끼 등을 包含시켰고, 그 다음 해인 1914年에 英國民俗學協會 會長인 번(Burne) 女史가 「民俗學便覽」 Hand Book of Foklore를 出版하였다. Burne女史도 口碑文藝 속에 說話(神話, 傳說, 民譚) 歌謠와 譚歌 俗談과 수수께끼 등을 包含하였다.

이와 같이 西洋에서는 일찍부터 民俗學 援用에 依한 文學(史) 研究에 口碑文學을 對象으로 삼았다.

1930年 쿠라트 A. G Krappe가 그 著書. The Science of Folk-lore를 낸 것이 Science라는 말을 쓴 最初인 것 같다. Folk-lore가 本來 民間의 知識이라는 意味로 쓰기 始作하여, 이것을 研究하는 學問의 名稱에도 同時에 使

用되어 오던 것을 學問의 뜻으로 Science of Folklore로 씀으로 民俗學이 科學인 學問의 位置를 굳히게 되어, 民間知識의 뜻으로는 Folklore, 學問쪽인 「民俗學」을 Science of Folklore로 쓰게 되었다.

Krappe도 「民俗學」 속에 口碑文學을 다루었다. 이 같이 口碑文學이 學問으로 擡頭된 歷史는 半世紀 程度이다.

우리 나라에서 口碑文學을 學問으로 講義된 것은 1961년에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國語國文學科에 「口碑文學論」 講座가 開設되어 張德順 教授에 依해 講義된 것이 처음이다.

著述로는 1967年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에서 刊行한 「韓國文化史大系 卷五에 「韓國口碑文學史」上을 張壽根 教授가 下를 任東權 教授가 執筆하였고, 1971年 11월에 韓國口碑文學會(張德順)에 依해 「口碑文學概說」이 出版되었다. 勿論 이 때까지 口碑文學 關係의 論文과 著書도 있었겠지만 寡聞의 탓인지 모르지만 「口碑文學」의 表題를 내세운 처음의 책들이 아닌가 한다.

口碑文學의 學問的 研究는 外國에서나 우리 나라에서나 民俗學에서 始作되었다. 民俗學에서 口碑文學을 研究 對象으로 삼는 理由는 口碑文學이 民俗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口碑文學은 原則적으로 文字로 記述되기 以前의 文學이고, 個人作者가 없는 自然發生的인 文學이다. 民衆 속에 生소한 生命력을 가지고, 그 時代에 依해 또는 話者나 聽者의 文藝能力에 依해 변어나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 變化를 하며, 口口傳承되어 왔다.

通時的으로 時代에서 時代로 共時的으로 地方에서 地方으로 傳承되어 오는 過程에 變化는 있었겠지만 그, 變化는 너무나 없는 것이 아니고 어느 範圍內에서의 變化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口碑文學은 恒常 聽衆을 前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聽衆의 嗜好를 無視한 變化는 聽衆에게 外面當하고 말고 聽衆이 없는 說話는 消

減될 수 밖에 없기에 언제나 聽衆인 民衆과 呼吸을 같이하고 民衆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代辯했을 때 聽衆의 共感을 얻어 傳承이 可能했다.

說話의 內容에는 保存되는 部分 即, 어느 話者가 이야기해도 保存되어 變하지 않는 部分과, 話者의 能力이나 處地에 따라 變하는 自由스런 部分이 있다. 이 變하지 않고 保存되는 部分은 重要的 Motif로서 이것을 變하면 이야기의 즐거리에 影響을 미치고, 듣는 사람이 그 變化를 쉽게 受容하지 않는 部分이다. 그러나 變化가 이루어지는 部分, 말하자면 話者에 있어서 說話의 自由部分이 있어 이 自由區域內에서 說話는 變化한다. 變化의 各段階도 바로 民衆이 變化를 受容하는 時代的 社會的 背景이 問題되며, 聽者의 態度和 話者의 文藝能力이 問題될 것이다.

本稿에서는 우리 口碑文學의 變化를 어떻게 把握할 수 있을까 하는 方法으로 時代, 社會的 背景和 話者의 文藝能力에 따라 變化에 미치는 影響을 考察하고자 한다.

2. 口碑文學의 特性

口碑文學 Oral Litterature, Litterature Oral을 流動文學, 浮動文學, 積層文學, 漂泊文學, 民俗文學 等 여러가지로 表現하고 있다. 이런 用語가 바로 口碑文學의 特性을 말하고 있다.

口碑文學은 記錄文學 Written Literature과 比較했을 때 그 特性은 뚜렷해진다.

R. G. Moulton은 「文學의 近代의 研究」에서 浮動文學(口碑文學)과 固定文學(記錄文學)을 다음과 같이 比較하였다.¹⁾

- 1) 浮動文學은 話者가 이야기 할 때마다 自由로 變化하나, 固定的文學은 罃(記錄)으로써 固定되고, 變化는 새로운 “版”을 必要로 한다.

1) Moulton著, 本多顯彰譯 文學의 近代의 研究, p. 22.

- 2) 浮動文學의 聽者(讀者)는 有識階級이 아닌 全民衆이고, 固定文學은 讀者階級이 知識層이다.
- 3) 浮動文學은 個人 創作者가 없고, 그 時代 民衆의 共同 著作이다. 그러나 固定文學은 個人에 依해 著作되고, 現代의 意味로는 個人 著作權을 갖는다.
- 4) 浮動文學은 傳統의 反響, 興味에서 이루어지고, 固定文學은 獨創의 興味에서 이루어진다.

고 하였다.

口碑文學은 말로 된 것이고, 말로 傳達되고, 傳承된다. 말로 傳達됨에는 말하는 話者와 듣는 聽衆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對面할 수 있는 範圍內에서 이루어 진다. 그러니까 大量傳達은 原則적으로 不可能하다.

口碑文學은 말(音聲)로만 傳達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抑揚, 몸짓, 表情 등에 依하여 傳達된다. 이야기할 때의 狀況 이야기의 內容에 따라 音聲의 變化, 表情, 몸짓 등을 달리하여 나타내는 口演 Oral Presentation文學이다. 原則적으로 口演을 떠나면 벌써 口碑文學이 아닌 것이다.

口演에 있어서 口演者는 듣는데로 그대로만 傳達되는 것은 아니다. 들었어도 잊어버리거나, 省略하기도 하고, 反對로 입담 좋은 「口演者는 口演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바를 自己의 創作을 보태서 自己데로 再現하여 다시 새로운 口演者에게 넘겨 준다. 새로운 口演者는 또 이를 받아서 같은 性格의 行爲를 되풀이 한다.」²⁾

또 같은 口演者이지만 口演할 때마다 똑 같지는 않다. 이같이 口碑文學은 固定文學같이 그대로의 傳達, 保存은 있을 수 없고 傳承이 可能할 뿐이다. 傳承은 반드시 變化를 內包한다. 傳承된다는 點에서 口碑文學은 民俗의이다.

口演될 때마다 自由로 變化하는 部分을 여기서는 口碑文學의 自由區

2) 韓國碑文學會刊, 口碑文學概說, p. 5.

域으로 다루려 한다.

口碑文學은 個人的 創作意識에 依하여 創造되는 記錄文學과 같이 特殊階級이나 貴族 支配階級の 知識이나 教養을 表現하려는 文學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兩班 知識層의 記錄文學은 生活自体와는 區別되는 知識이고, 品位있는 教養이었기에 文學한다는 意識과 함께 創造되나, 民衆의 口碑文學은 生活과 區別되지 않고, 文學한다는 意識없이 生活을 表現하는 生活속에서 自然發生한 民衆의 文學이다. 이 속에 民衆의 素朴한 生活感情과 生活經驗 價值觀 등이 反映되어 있는 것을 口碑文學의 特性으로 잡는다.

3. 自由區域의 解釋과 理解

1) 檀君神話

檀君神話は 記錄이 너무 斷片的이지만 說話的 要素를 많이 內包하고 있다. 그런데 이 神話가 比較的 後世의 書에 記錄된 가담에 荒誕視하고 後人の 捏造라 하여 否認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나라의 古代人の 思惟를 찾고, 口碑文學 研究를 위해서는 看過할 수 없는 記錄이다.

古記云。昔有桓因 庶子桓雄。數意天下。貪求人世。父知子意。下視三危太伯可以弘益人間。乃授天符印三篇。遣往理之。降於太伯山頂(即太伯今妙香山) 神壇樹下。謂之神市。是謂桓雄天王也。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在世理化。時有一熊一虎。同穴而居。常祈于神雄 願化爲人。時神遺靈艾一許。蒜二十枚曰。爾輩食之。不見日光百日。便得人形。熊虎得而食之忌三七日。熊得女身。虎不能忌。而不得人身。熊女者無與爲婚 故每壇樹下。呪願有孕。雄乃假化而婚之。孕生子。號曰檀君王儉一中略一壇君乃移於藏唐京。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壽一千九百八歲。一後略一〈三國遺史 紀異卷 第一古朝鮮〉

라고 記錄되어 있다. 三國遺史와 거의 同時의 撰인 頭陀居士 李承休의 帝王韻記 卷下에는 檀君神話を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初誰開國啓風 雲釋帝之孫名檀君(本紀曰 上帝桓因有庶子曰雄 云云 謂曰 下至三危太白 弘益人間歟 故雄受天符印三篇 率鬼三千 而降太白山頂神檀樹下 是謂檀雄天王也 云云 令孫女飲藥成人身。與檀樹神而生男 名 檀君 據朝鮮之域爲王 故尸羅 高禮 南北沃沮 東北扶餘 穢與貊 皆檀君之孫也 理一千三十八年 入阿斯達山 爲神 不死故也) 並與帝高興 戊辰 經虞歷夏居申宸於殺武 丁八乙未 入阿斯達山爲神(今九月山也 一名弓忽 又名三危 祠堂猶在) 享國一千二十八 無奈變化傳桓因 却後一百六十四仁人聊開君臣(一作竊後一百六十四雖有父子無君臣)

이 같이 두 기록에 差異가 있다. 開國神話인 檀君神話가 三國遺史나 帝王韻記와 같은, 後代의 記錄으로 되기까지는 그 以前에 있었던 「古記」나 「本記」에 일단 記錄되었고, 다시 僧一然이나 頭陀居士에 依에 記錄된 것이다. 現在 傳하고 있는 檀君神話에 差異를 가져오게 한 것은 文字에 定着(本記나 古記) 以前에 口口傳承하여 오던 說話에 差異가 있었음을 말하고 一然이나 李承休에 依해 記錄될 때도 改變이 있었을는지 모른다.

이 神話中 舉論해 볼 句節은

- A) 昔有桓因(謂帝釋也)
- B) 雄率徒三千
- C)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 D)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 E)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檀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 檀君王儉(三國遺史)
- A') 本記曰 上帝桓因有庶子曰雄
- B') 率鬼三千
- C')
- D') 是謂檀雄天王也 云云 令孫飲藥成人身
- E') 與檀樹神婚而生男 名檀君
- K) 據朝鮮之域爲王 故尸羅 高禮 南北沃沮 東北扶餘 穢與貊 皆檀君之孫也(帝王韻記)

等이다.

여기서 檀君神話가 高麗朝에 와서 國尊一然과 密直副使監察大夫詞林學士承旨의 벼슬을 지낸 李承休에 의해서 쓰여짐으로 해서 오는 史觀의 差도 있었을 것이고, 本記나 古記의 影響으로 解釋해야 할 것이다.

A—A'에서 桓雄을 一然을 佛教에서 말하는 須彌山 꼭대기에 있어, 三十三天을 다스리며 佛法을 지키는 忉利天의 임금인 帝釋이라 하였고, 帝王韻記에서 頭陀居士는 儒家에서 天帝나 上帝나 모두 하느님을 말하는上帝라 했다. 하느님을 道家에서는 玉帝 或은 玉皇上帝라 한다. 玉皇上帝는 道家에서 뿐만 아니라 儒家에서도 하느님의 뜻으로 쓴다.

B—B'에서 桓雄은 그의 무리 三千을 거느리고 太伯山頂에 내려왔다고 遺史에서 말한데 比하여 帝王韻記에는 鬼神三千을 거느려 太白山마루에 있는 神檀樹 아래로 내려 왔다고 했다. 率鬼神三千을 했으니 여기서의 桓雄은 道家의 立場에 서게 된다.

「桓雄의 무리가 三千이라 함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必要한 사람의 數交를 가리킨 것이며, 또한 神政의 規模가 큰 것을 나타내는 뜻도 된다. 高句麗 東明王 神話에도 天帝子 解慕漱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따르는 무리가 百餘名이었다는 記錄이 있다. 그 숫자를 三千이라 함은 佛教 經典의 三千世界에서 비려 온 듯도 하니, 或 撰者 一然의 潤色이 아닐런지」³⁾ 모르겠다.

C—에서 桓雄이 風伯 雨師 雲師를 거느리고, 穀食 壽命 疾病 刑罰 善惡 등을 主管하고, 人間世界를 다스려 教化시켰다.⁴⁾ 함은 이미 原始生活에서 一段 發展한 農耕社會의 生活을 營爲하는 祭政一致의 機能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 上古人들이 自己들의 祖上神의 優越性を 讚揚하고 始祖의 由來와 出生을, 神聖視하고 傳함으로써 그들의 優秀성과 權威性을, 維持하려는 神

3) 三國遺史(1) 李載浩譯註 p. 76 서울 光文出版社, 1969.

4)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一神政時代의 政治인 穀(農業關係) 命(生命關係) 病(建康關係) 刑(刑罰關係) 善惡(道德關係)의 五大 政治 項目

話임을 본다.

D—D'에서 사람이 되길 비는 꿈과 범에게 神(神雄—桓雄)이 神靈한, 쑥 한 십지(柱)와 마늘 二十枚를 주면서, “먹고 백날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의 모습이 될 것이다. (得人形)” 한 것에 原始 呪術性을 엿볼 수 있다. 神聖앞에서의 禁忌, 人間이 되기 위한 禁忌와 呪術性이 있다.

百일은 오늘날 아이들의 백날과, 三七日은 產後의 셋 이래로 解釋한다면 새 人間の 誕生으로 解釋이 可能하지 않을까. D'에서 孫女로 하여금 藥을 먹여 成人身하였다 함은 神이 人間の 모습으로 化한 것이니 道敎의 色彩를 볼 수 있다. 檀君의 出生을 熊女에서 온 것으로 보는 遺史와는 全然 다른 생각이다. 여기서 보면 遺史는 古記에 따랐고, 帝王韻記는 本記에 따랐다고 하나, 傳承體系가 다르고, 또 種과 儒者의 差異에서 오는 文化體系의 差異일 것이다.

E—E'에서 女子가 된 꿈은 婚姻할 相對가 없음으로 항상 檀樹 밑에서 아이 배기를 祝願했더니, 桓雄은 이에 臨時로 變하여 結婚해주었더니, 그는 妊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하여 檀君王儉이라 했다 한다.

이것은 原始社會에서 같은 토tem 안에서는 婚姻이 禁止되어 있음을 생각할 수 있고, 桓雄이 假化而婚之하였다 함은 人間世界를 위해 잠시 化身하였다지만, 그 必要가 없어짐으로 해서 神格으로 되돌아감을 意味한다.

그러나 D'에서는 人間으로 變身하지 않고 檀樹神으로 婚而生男하였다.

끝으로 K—에서 檀君이 朝鮮의 땅을 차지하여 王이 되었다. 이런 까닭에 新羅, 高麗, 南北沃沮 東北扶餘 濊와 貊은 모두 檀君의 子孫이라고 하였다.

「이 神話는 이른바 人文神話로서 꽤 低級神話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것으로 보아야겠는데, 그러자면 그 傳承過程에는 地理, 歷史的인 많은 流動變化가 뒤따랐던 것으로 여겨야겠다. 그 時代와 地域의 始初는 지금 말하기 어려우나 일단 이 集團勢力이 敗亡한 이후의 衛滿·樂浪·高句麗·統一新羅 時代의 긴 傳承은 高句麗·新羅가 例外없이 자기의

始祖神話를 가졌으니, 邊方遺民들 사이에 내던져진 傳承이었을 것이다⁵⁾.

이 邊方遺民들의 始祖인 檀君을 어찌서 新羅·高麗뿐 아니라 모든 部族國家의 祖上이라고 頭陀居士는 記錄했을까.

高麗 忠烈王代에 와서 三國遺史나 帝王韻記가 記錄될 當時, 高麗가 北方胡族에게 연달은 懷慘한 蹂躪을 當하고 있던 歷史性이, 國民結束의 精神의인 求心點을 必要했기 때문에, 檀君을 韓半島의 모든 始祖神話로 集約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이 神話의 說話的인 面과 上古에 傳해지는 民族의 思想感情과 傳承体系의 差에서 同一根源 說話에 差異를 가져옴을 볼 수 있다.

2) 口碑文學의 流動

口口傳承하던 民族說話나 歌謠는 流動하는 가운데 變遷과 傳承者들의 交替에 依해 原型이 恒常 改變傳戎하면서, 文學的 財源으로 繼承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많은 口碑文學은 口演者에 依해 口演되는 동안에 聽衆들과 가장 接近될 수 있는 方法으로 發展해 왔다.

어떤 說話는 口演되는 동안에 이야기의 줄거리만을 쫓아, 아무 變化없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音調의 變化라든가 몸짓등의 併用에서 보다 聽衆들과 接近할 수 있는 方法이 研究되었다.

이 같이 說話가 音調의 變化를 同伴하게 되자 說話內容에 있어서도 自然히 많은 修辭를 가져올 뿐더러, 그 音調에 있어서 自然스러운 우리 民謠의 呼吸인 四四調 三四調의 形式으로 엮어 이야기 하게 되었다. 이야기에 노래가 插入되고 몸짓이 隨伴하게 되자, 이야기하는 데도 어떤 技術的인面이 따르게 되어 自然히 이야기길 專問으로 하고 다니는 民俗遊行者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 이 說話를 專問으로 하기에 이르는 廣大라는 階層이 發生한 것이다. 이 廣大들은 庶民階級の 生活에서 얻어지는 이 「說話와 노래」를 판소리라 이르게 되고 판소리는 辭說과 唱 그리고 動作에서

5) 張鶴根, 韓國口碑文學史上, p. 645, 韓國文學史大系卷 5.

오는 劇的인 要素를 가져 劇歌를 이루었다.⁶⁾

庶民의 意識과 庶民의 生活感情을 內容으로 이루어 지는 古代小說中에서는 이 판소리를 通해 이루어진 作品들이 높이 評價되고 있다.⁷⁾

우리 古代小說中 春香傳・沈清傳・興夫傳・장끼傳・토끼傳・雍固執傳・卞강쇠傳 같은 小說은, 唱劇本 小說로 우리의 生活을 表現한 뛰어난 作品들이다. 또 赤壁歌・江陵梅花傳・流英娘子傳・襄裨將傳・武淑이 다령等은 「판소리 열두 마당」으로 우리나라 名唱들에 依해 많이 불려진 口碑文學系 作品들이다.

여기서 說話가 流動하여 이루어진 판소리와 판소리의 臺本에서 이루어진 古代 小說을 보는 것이다.

우리 古典文學의 最高峰인 「春香傳」은 現在 三十餘種의 印本・寫本이 傳하고 있지만, 甲午更張 以前本이 二種뿐이다. 木板本으로 된 두 本은 둘 다 國文本인데 하나는 서울 翰南書林 發行인 通稱 京版本 「春香傳」이고 또 하나는 全州 完書溪書舖 發行인 通稱 完版本 「春香傳」(烈女春香守節歌)이다.

이 보다 앞서 英祖三十年 晚華堂 柳振漢의 「春香歌」가 있다. 또 「宋晩載」의 「觀優戯」에 春香打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英祖末年까지는 「春香傳」底本으로서의 唱劇의 脚本인 打令本이 形成되었을 것이다⁸⁾. 또 國文學全史에는 「春香歌는 百數十年前의 全州 板本 四十張쯤 되는 「別春香傳」이 가장 그 原本에 가까운 같고, 더 오래된 것으로는 英祖 三十年 甲戌에 晚華堂 柳振漢의 著作인 七言二百句 「春香歌」가 있다.⁹⁾ 하였으니 始初의 春香傳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春香傳의 原本은 打令調의 劇歌였을 것이다. 이 春香傳이 처

6) 趙東一, 「興夫傳」의 兩面性

—판소리系 小說 研究의 方法論 摸索을 위한 試攷—參考

7) 판소리의 發生에 關한 論考는 金東旭教授가 「판소리 發生攷」(1)(2) 서울 大學校 論文集 人文社會科學 第2,3輯(1965)(1966)에서 論考되어 있음

8) 金起東: 李朝時 小說說論 p448

9) 李秉岐 白鐵著: 國文學史. p. 178

을 四十張 程度에 지나지 않던 것이 오늘에 와서 어찌 長篇 春香傳으로 되었는가.

여기에 口碑文學의 形態를 볼 수 있는 것이다.

口碑文學은 口頭傳承에 있어서 그 傳承者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自由로 變化할 수 있는 說話의 自由區域을 볼 수 있는 것이며, 聽衆들이 特殊層이 아닌 全 民衆이라는 點도 流動의 文學의 形態 變化에 큰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가장 큰 原因으로 民衆의 「共同著作」이라는 데 있는 것이다.

流動의 文學에는 쓴다(記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관소리」로서의 劇歌의 唱詞辭說을 어떤 個個人的 著作이라는 制限이 없는 것이다. 「廣大」들은 이 劇歌의 唱詞·辭說을 「廣大」라는 全體의 이름으로 가지는 것이다. 各 廣大 또는 「장타령」을 하는 民俗遊行者들은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唱詞·辭說을 그대로 使用하여 그대로 노래하거나, 또 唱詞, 辭說에서 벗어났다 하여,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文學의 所有權의 意識이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無斷히 使用한다든가 또 自己만이 獨創的인 것을 使用해야 한다는 데 對하여 關心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어떤 唱詞나 辭說이 聽衆들을 더 즐겁게 또 興味를 가지게 하는가 하는 것이 그 唱詞나 辭說을 傳承케 하는 큰 原因이 되는 것이다. 옛날부터 傳承될 수 있는 生命을 지닌 것 이것을 우리는 傳統이라 부르는 것이다.

옛날에 있어서 大衆인 聽衆들에게 愛好되던 것은 언제나 같은 表現法으로 反復되어 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傳統의 反響, 이것이 興味와 連結되는 것이다.

口傳의 文學에 個人的 著者が 없이 모든 聽衆들의 歡心을 살수 있는 內容들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製作할 수 있고, 또 傳承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口碑文學의 形態가 있는 것이다. 大衆에 依해서 創作되고, 大衆에 依해서 傳承되는데 口碑文學의 特殊한 形態가 있는 것이다.

結局 最初의 어느 說話의 發生은 그것을 傳承케 하기 爲한 手段으로 音調와 同調하여 口演(관소리)으로 移行한다.

판소리는 劇歌로서 많은 插入歌謠로 形態的인 轉移를 이루는 것이다. 例컨대 辭說의 改作(Adaptaton)과 擴張 Expansion이 있고, 實地 歌唱 者의 誤解 Misunderstanding와 誤聽 Mishcaring 등으로 해서 最初의 說話에서 距離가 멀어진 別個의 것이 생기게 되고, 後에 다시 筆寫者에 依해 다시 擴張되거나 要約 Summarize되어 異本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轉移가 있음에도 口碑文學은 그 民族 속에 어떠한 形式으로든 間에 남아 있는 것이다.

3) 口碑文學의 定着

人間의 生活感情이 單純하고 素朴하던 時代에는 綜合藝術體가 그들의 生活感情과 生活樣式을 表現할 수 있었고, 藝術活動을 勘當해 낼 수 있었다. 이것이 人智의 發達로 人間生活의 複雜化하고 따라서 모든 分野가 각기 分化하게 되자 原始 綜合藝術體도 例外일 수는 없었다. 綜合藝術의 形式은 그들의 生活을 表現할 수 없게 된 것이다.

人間들의 生活感情을 滿足시키기 爲해 綜合的인 藝術形態에서 個別的인 分野로 獨立해 나가게 되었다. 口碑傳承하던 民族說話나 民謠는 時代的인 變遷과 交替사이에서 流動하면서 分化되어 나갔다. 時代와 傳承者들의 變遷과 交替사이에 流動하던 口碑文學이 表記方法을 얻어 文字에 定着하게 되었다.

文字에 記錄되기 以前의 流動的 文學이 文字에 依해 記錄 됨으로써 流動的 文學이 一時的으로 消滅 또는 停止되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이 文字上에 定着하는 面과 相互交涉는 보다 훌륭한 固定文學을 만듦과 同時에 새로운 流動的 文學을 그 속에 胚胎하는 경우들도 볼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固定的文學의 特徵이 文字로 씌움으로서 固定된다는 것과 그 變化는 반드시 새로운 「版」을 必要로 한다는 것 流動的(口碑的)文學에 있어서는 聽衆이 階級的 差別없는 全民衆이었다는 데 對하여 一部特殊層인 讀書階級인 것이다.

固定的 文學에 있어서는 그 「版」의 「年代」的인 것이 主要한 問題가 된

다. 流動의 文學에 있어서는 口傳的인 發展에 年代的인 觀念이 重要な 意味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固定的 文學에서 더욱 重要的 것은 作品의 「眞僞性」의 問題인 것이다. 古典研究에 있어서 作品의 出版年代와 그 「原典眞實」의 確認이 큰 問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原典의 眞實」의 問題는 畢竟은 「누가」 쓴 것에 틀림 없는가 하는 個人著作에 關聯된 問題인 것이다.

流動의 文學에 있어서 그 作品이 널리 愛讀된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많은 著作者가 (共同著作者) 있다는 말이 되지만, 固定 文學에 와서는 반드시 個人著作權의 絶對的인 옹호가 있는 것이다.

이 個人 著作의 優勢는 獨創의 文學的 興味の 強調에도 이끄는 것이다. 여기서 剽竊의 問題가 指摘되는 것이다. 「流動의 文學」에 있어서는 不正直이라는 것, 作品의 剽竊이란 전혀 問題視되지 않는다. 定着的 文學에 있어서는 크게 重要的 事實로 되는 것이다. 卽 流動의 文學과 固定的 文學의 區別은 그 作品의 「眞僞」성과 「年代의 問題」에 關係를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問題視되는 것은 流動의 文學과 固定的 文學의 交涉關係에 있는 것이다.

流動의 文學이 固定的 文學時代에 이를 때 일어 나는 現象은 첫째 口傳文學의 一部는 集團的인 作品에서 個人的인 作家에 依해 쓰여지고 固定的 文學의 資料가 된다는 것, 둘째 一部分은 그대로 如前히 口傳的으로 傳承되어가기는 하지만 徐徐히 固定的 文學으로 말미암아 除去되어 死滅해 버린다. 세계 어떤 詩(民謠)가 아직도 口口傳承 되는 段階에 있어서 그 內容이 自由스럽게 變化하고 있을 때 그 어느 特殊한 口傳의 部分이 記錄되어 남을 수가 있을 것이다. 一形態는 記錄에 依해 定着되고 文學上에 定着되게 한 原形은 流動되어 가 버리는 境遇가 있는 것이다. 이 때 文字에 定着된 詩를 化石의 詩라고 “불톤”은 말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많은 古典文學의 한 特徵으로 著作者가 없음은 우리나라의 古典文學은 流動의 文學에서 固定的 文學으로 되었다 하여도 역시 流動의 文學의 性格을 벗어나지 못한 中間 位置에 있는 文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結

口碑文學의 研究는 民俗學에서 出發하였다.

民俗學은 最初 英國에서 Folk-lore의 이름으로 研究가 시작되어 1878년에 民俗學協會가 創立되었다. 學問으로서의 「民俗學」The Science of Folk-lore이라는 用語는 1930년에 처음 Krappe에 의해 쓰였다.

韓國에서는 1933년에 宋錫夏·孫晉泰 先生에 의해 朝鮮民俗學會가 組織되어 이 學會를 通해서 民俗學 Folk-lore이 本格的으로 始作되었고, 「口碑文學論」이 學問으로 講義되기 始作은 1961년부터다.

이런 狀況下에서 近者에 國文學 研究가 記錄文學의 研究와 口碑文學 研究의 兩大分野로 되어 가고 있으나, 口碑文學 研究 方法論의 問題가 있다.

口碑文學이 傳承文學이고 口演文學이기에 口演과 傳承 過程에서의 變化를 어떻게 把握하고, 理解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였다. 口演·傳承될 때 무작정 變하는 것이 아니고, 變化를 해도 어떤 範圍內에서만 變할 것을 생각하고, 이 範圍를 「口碑文學의 自由區域」으로 設定해 보려 하였다.

또 變化의 要因을 傳承者의 文藝能力이나, 民衆이 變化를 受容하는 時代的, 社會的 背景을 問題삼아야 되겠다. 特히 變化因子로서 言語 風俗 社會構造 등 文化環境과, 氣候, 風土등의 自然環境에 따르는 民衆의 意識 構造等に 焦點을 두고 생각해 보려했으나 未盡하였다.

最近 口碑文學系 小說研究에서 根源說話의 追跡 異本校合, 構造分析에 의한 研究가 活潑해지고 있는데, 이런 方法을 通해 口碑文學의 自由區性도 問題삼을 만 하다고 생각된다.